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song.co.kr E-mail : ejs0835@hanmail.net

은송인(恩宋人)의 정신

충효(忠孝)의 정신
고결(高潔)한 선비정신
은덕불사(隱德不仕)의 정신
송조목족(崇祖睦族)의 정신

■ 發行人/宋錫根 ■ 編輯人/宋在億 ■ 印刷人/宋富鎬 ■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중시조 쌍청당 선조님 세일사 엄숙 봉행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우천으로 丙舍에서, 전국 종인 200여명 참여

2024년 11월 1일(음력 10월 1일) 금요일에 판암동 산소골에 모여져 있는 쌍청당 선조님의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요 며칠 기온이 내려가 쌀쌀했는데 일기예보와 달리 세일사 당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려 묘전제사를 올리지 못하고 200여명의 종인들이 참석한 쌍청회관 제사에서 봉행하였다.

제례는 쌍계당공파 송철기 직일(直日)이 세일사 헌관소개와 선조님의 행장을 설명하고 창홀을 청하자 호군공파 송하영 집례(執禮)의 창홀로 세일사가 시작되었다.

초헌(初獻)에는 대종손 송교진, 아헌(亞獻)에는 사우당효정공파 송진팔,



▲ 쌍청당 세일사를 마치고

중헌(終獻)에는 모은공파 송재동, 축관(祝官)은 주부공파 송기수, 집사(執事)는 삼가공파 송인호와 송창공파 송치안, 진설(陳設)은 호군공파 송덕영이 맡아 봉행하였다.

이어서 산신제를 봉행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쌍청회관 좌석뿐만 아니라 옆 통로와 마당까지 종인들과 쌍청당상 수상자 가족 등이 식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송인집 총무유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고문, 임원소개에 이어 쌍청당상과 대종회장 표창 시상식을 하였다. 수상자 가족들과의 기념촬영에 이어 송석근 대종회장, 송성호 파유사회 의장, 송교진 대종손의 인사말을 하고, 이어서 총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정기총회를 마쳤다. 우중인 관계로 쌍청회관내에서 점심식사를 한뒤 삼삼오오 귀가하였다.

대종회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 종인들의 높은 송조돈목정신으로 화목하고 원만한 은송의 중시조 쌍청당 선조님 세일사를 봉행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차 파유사 회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

2024년도 제2차 정기 파유사회 회의가 10월 25일 10시부터 13시까지 대전시 동구 판암동 쌍청회관에서 열렸다. 파유사 정원 46명 중 44명이 참석하여 송인집 총무유사의 사회로 성원보고, 개최선언, 국민의례, 중기에 대한 경례, 파유사회 의장, 대종회장, 대종손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총무유사가 중



▲ 파유사회의

무보고, 전차회의록 낭독은 파유사회 의자로 송부시 배부한 총무보고서, 회의록 사본으로 대체할 것을 말하여 내용 수정없이 파유사들이 승인을 하였다. 그리고 안건 심의에 앞서 송성호 파유사회 의장은 종규 제 12조에 의한 회의록 서명유사로 쌍계당공파 송철기, 빙호공파 송용호 파유사를 지명하였다. 파유사회 의장은 제1호 안건

으로 감사 및 종규개정위원 보선의 건을 상정하여 감사는 무주공파 송왕호, 종규개정위원은 빙호공파 송용호가 보선되었다. 제2호 안건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어 장재유사가 제안설명을 하고 파유사들이 심의를 하여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

제3호 안건은 쌍청회관 인수 및 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의한 바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가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안이 있어, 이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제3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제4호 안건은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시간에 파유사회 의장 징계의 건이 발의되었으나 서로간에 논쟁이 심하였다. 오후 1시경 폐회하였다.

2024년도 제2차 상무유사회의 개최

2024년 10월 15일 (수) 10시 대종회 종규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무유사회 의장(대종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 상무유사회의

월별 주요업무계획과 중무보고서를 설명하였으며, 오늘 심의할 안건의 요지를 말하고 대종회 회장실에서 상무유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상무유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제2차 파유사 회

의에 상정할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쌍청회관 활용의 건(안)을 장재유사가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상정안건은 상무유사들의 토론과 숙의된 의견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쌍청당 세

일사와, 지평공 세일사에 대한 재판분정은 대종회장에게 위임하고 회의를 마쳤다. (총무유사 송인집)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2024년 10월 8일(화) 대종회 사무실에서 포상심사위원 5명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쌍청당상 상격심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석근 대종회장은 인사말에 이어 심사에 앞서 포상심사위원에게 상격



▲ 포상심사위원회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쌍청당상에는 송창공파 송용섭, 추파공파 송희원 2명의 후보가 추천 접수되었다.

심사위원들은 포상심사규정에 의한 추천사유, 공적조서, 은송 발전과 송조돈목의 정신에 기여한 점과 사회적으로 은송의 명예를 높인 공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심의한 결과 쌍청당상

대상에 대종회 파유사, 포상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상4대와 진사공·류조비 세일사, 쌍청당 세일사를 자비로

설행하였으며, 쌍청회관건립 모금에 참여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한 송창공파 송용섭과 대종

회 상무유사, 파유사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정랑공중종 회장 재임시 4세 평산공 묘소 천장에 기여하였으며, 선대조 세일사 성금과 장학성금을 꾸준히 헌성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한 추파공파 송희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전원이 선정 의결하였다. 시상식은 11월 1일 쌍청당 세일사 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총무유사 송인집)

쌍청당상 시상



송희원



송용섭



송인석



송재역

쌍청당 세일사 봉행 후 쌍청회관에서 거행된 정기총회 시상식에서 쌍청당 대상을 추파공파 송희원, 송창공파 송용섭이 수상하였으며, 송조돈목정신이 투철하여 대종회 운영에 출전수

범하여 타종인의 귀감이 된 삼가공파 송인석, 진산공파 송재역이 대종회장 표창패를 받았다. 각각 상패와 부상으로 금일봉이 수여되었다.

(총무유사 송인집)

돈암서원 추향제

지난 9월 20일(음력 8월 18일) 논산시 연산면에 소재한 돈암서원에서 추계제향 행사가 거행되었다.

돈암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충청지역의 유일한 서원이다.

조선후기 호서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예학의 산실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사계 김장생 선생을 주벽으로 신독재 김



▲ 돈암서원 추계 제향을 마치고

집 선생, 동춘당 송준길 선생, 우암 송시열 선생 4현을 배향한 서원으로 4현 모두 문묘에 배향된 동국 18현 이시고, 돈암서원 묘정비는 우암 선조계

서 찬(撰)하시고 동춘당 선조 글씨로 세워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행된 제향에는 초헌관에 강경환 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아헌관에는 김수철 전통문화대학교 교학처장, 종헌관에는 배성근 원임 원장이 맡아 엄숙한 가운데 제향 행사를 마쳤다.

금번 제향에 우리 恩來에선 대종회는 일기 불순으로 향전료를 올리고, 송용순 동춘당 문정공종중 도유사, 송영진 동춘당 문정공종중 총무가 참제하고 돌아 왔다.

(동춘당문정공파 도유사 송용순)

흥암서원 추향제

지난 10월10일 상주 흥암서원에서 추계 제향 행사가 거행되었다.

흥암서원은 퇴계학맥의 영남 남인들의 활동지역에서 울곡 이이, 사계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맥의 적전으로 평가받는 동춘당 송준길 선생이 단독으로 배향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서원이다.

또한 1871년(고종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 흥암서원 추계제향후 현판 기증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다.

금년 추계제향 초헌관에는 안경숙 상주시의회위원장, 아헌관에는 김영규 남원동장, 종헌관에는 동춘당 문정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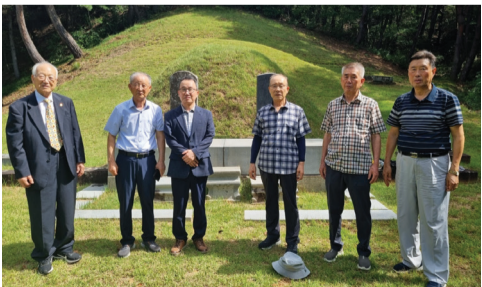
종중 종원 송용길이 맡아 거행하였고, 동춘당종중 도유사 송용순을 비롯한 종원 8명이 함께 참제하고 돌아왔다.

제향을 마친 후 동춘당종중에서 제작한 현판(동춘당 선조가 직접 쓴 주자의 글을 모사하여 제작)을 서원에 기증하는 행사도 함께 거행하였다. 전달 후 흥암서원 측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특별한 인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마치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금번 현판 제작비용을 전담해준 동춘당 문정공소종중(도유사 송만순) 임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동춘당문정공파 도유사 송용순)

대종회, 추석 선대조 산소 성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024년 9월 19일 대종회 집행부(송석근 대종회장, 송인집 총무유사, 송인한 장재유사)와 파유사회 송성호의장, 송용순 감사, 송교진 대종손, 목사공종중 송서호 회장은 선대조 묘역에 성묘를 했다.

먼저 동구 마산동으로 이동하여 추원사에 모신 상 4대 선조님 신 위 앞에 정중히 예를 올리고, 진사공(5세 諱 克 己극기)과 열부 안인 고홍류씨 산소에 올라가 지난 여름 장마, 태풍으로 무너진 곳이 없는지



▲ 선대 성묘를 마치고 좌로부터 송석근 대종회장, 송서호 목사공종중 회장, 송교진 대종손, 송용순 감사, 송성호 파유사회 의장, 송인한 장재유사

별초는 잘 되어 있는지를 둘러보며 갑진년 한가위를 맞이하여 선조님의 명복과 후손의 번영, 안녕을 고하고 성묘하였다.

성묘를 마치고 주산동으로 이동하여 지평공(7세 諱 繼祀계사) 선조님 묘소에 성묘하고 마산동, 주산동에 모신 선조님 산소에 향배하고 사성동을 찾아서 포근한 잔디밭과 시원한 대청호가 어울어진 평산공(4세 諱 斯敏사민) 선조님 묘소와 사성동과 이사동 산소

에 모셔진 선조님들의 형우 제공의 아름다운 미담을 이야기하며 정랑공(8세 諱 順年순년) 선조님 묘소에 성묘하고, 이어서 건너편 산기슭에 모신 사직공(7세 諱 繼 繼)과 주부공(8세 諱 眉年미년) 선조님 묘소에 성묘하고, 판암동 은송의 증시조이신 쌍청당(6세 諱 倫유) 선조님 산소에 대종회의 현 실정과, 불원

대전지역 성현(聖賢) 추향제

1. 회덕향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97번 안길126 (읍내동)에 있는 회덕향교(전교 조만형)에서는 9월10일(음력8월8일 초정)에 관내 많은 유림과 향교 임원 70여명이 참석하여 추기석전대제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초헌관에는 대전광역시향교재단 이사장 이희재李熙宰, 아헌관에는 회덕향교 장의 송영래宋永來, 종헌관에는 회덕향교 장의 박원기朴元基, 동분헌관에 회덕향교 장의 강창선姜彰善, 서분헌관에 회덕향교 장의 윤대권尹大權, 집례 회덕향교 장의 김진서金鎭緒, 축관 회덕향교 장의 류종열柳鍾烈 외 집사들이 11시부터 12시까지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회덕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聖과 송조4賢, 아국 18현, 27위를 모셨고 그중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우암우庵 송시열宋時烈 두분이 우리 은진송씨 이시다.

2. 문충사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73번길 44 (용운동)에 있는 문충사(이사장 류종현)에서는 9월 29일(음력8월 28일 말

정)에 전국에서 온 유림과 은진송씨 대종회 임원 그리고 관내 유림 용동 서원 서예반원이 참석하여 추향제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초헌관에는 문충사 이사장 류종현柳宗鉉, 아헌관에는 은진송씨 우암 문정공파 공



▲ 송현서원 추향

사원 송안호宋安鎬, 종헌관에 동구문화원장 양동신梁東信, 집례에 전 연기향교 전교 최청환崔淸煥, 축은 진잠향교 장의 강주성姜周聲 외 집사들이 질서 정연하게 진행하였다.

문충사에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상소하고 일제의 국권피탈에 항거하다 자결한 연제 송병선을 주향으로 하고 경술국치에 형 송병선을 따라 자결한 심석재 송병순 형제를 배향한 사우이다.

3. 남간사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로53 우암사적공원에 있는 남간사(도유사 송인승)에서는 10월 10일(음력9월 8일 초정)에 헌관과 집사 그리고 은진송씨 종원과 관내 유림 몇 분이 참석해서 조촐하게 진행하였다. 이날 초헌관에는 충청종합신문대표 김백수金白洙, 아헌관에 동구문화원장 양동신梁東信, 종헌관

에는 반딧불이 대표이사 송문중宋文中, 예차헌관 장정식張正植, 집례 회덕향교 장의 송인수宋寅受, 축 회덕향교 장의 류종열柳鍾烈 외 집사 몇 분이 진행했다. 전에는 전국 유림과 관내 유림이 많이 참제하였으나 이번 행사에는 참제자도 적고 도기소도 없고 연정 국악원에서 와서 제례악을 연주 하지도 않았다. 금년 춘향 때도 그랬는데 추향 때 역시 개선되지 않고 점차 숭배하던 우암 선조를 추앙은 못 해도 잊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간사에는 문정공 우암 송시열을 주향으로 하고 문순공 수암 권상하. 석곡공 송상민을 東西로 배향하고 있다.

4. 송현서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51번길36 (원촌동)에 소재한 송현서원(원장 임덕순)은 10월 20일(음력 9월 18일 중정)에 서원에 배향된 후손 동래정씨, 은진송씨, 경주김씨 종원 40여명, 지역 유림 20여명, 헌관집사 등 많은 참제자가 참석하여 성대하게 추향제를 봉행했다.

이날 초헌관에는 유성구 국회의원 황정아黃淸雅, 아헌관에 회덕농협조합장 김낙중金洛中, 종헌관에는 동래정씨 수부 정광필 후손 정광희鄭光熙, 집례 회덕향교 장의 송인수宋寅受, 축 회덕향교 장의 류종열柳鍾烈 외 10여명의 집사들이 한치의 착오 없이 일사 불

란하게 진행했다.

송현서원에는 문익공 수부 정광필(鄭光弼. 정랑공<順年>의 사위), 문간공 충암 김정(金淨. 동파공<汝翼>의 사위), 문충공 규암 송인수(宋麟壽, 정랑공<順年>의 증손자), 문원공 사계 김장생(金長生), 문정공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문정공 우암 송시열(宋時烈), 충목공 죽창 이시직(李時稷, 승사랑공<世英>의 사위), 충헌공 야은 송시영(宋時榮, 습정공<邦祚>의 장남) 이렇게 8현이 모셔져 있다.

특히 이번 추향에는 전국 동래정씨 문중 대표 20여 명이 참제하고, 따로 봉심하였고 대전 대표가 유명한 성심당 빵을 선물하기도 했다.

동래정씨는 한 분이 배향되었음에도 매년 많은 후손이 참석하는 데 은진송씨는 네 분이나 모셔져 있음에도 몇 분 참석 하지 안하고 있으니 많은 비교가 되고 있다. (송창공파 공사원 송규영)

간 쌍청회관을 다듬어 선조님의 고귀한 은덕불사정신을 기리는 전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고유하고 겸손히 웃기를 여미고 재배하였다.

그리고 천여기의 선대조님들이 고이 잠들어계신 이사동으로 발길을 옮기

어 목사공(8세 諱 遙年요년) 선조님, 양근공(9세 諱 汝霖여림) 산소에 성묘하고 종중의 발전과 종원들의 화목, 건강을 기원하며 성묘를 마치고 늦더위 흐르는 땀을 씻었다.

(총무유사 송인집)

제15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참가

대전광역시 중구청 주관으로 열리는 제15회 효문화뿌리축제가 전국 100여 성씨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대전시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뿌리공원에는 전국의 244개 문중의 성씨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은진 송씨도 고유번호 136번으로 조형물(성씨 유래비)이 설치되어 있다.

각 성씨별 문중 입장퍼레이드는 이틀째인 12일(토) 10시부터 있었는데 우리 문중에서는 송석근 대종회장, 송교진 대종손, 송희원 고문, 송성호 파유사회 의장, 송서호 목사공종중

회장 등 각파의 종인 100여명이 멀리 서울, 청주와 대전지역에서 참석하였다.

우리 문중은 문중입장 퍼레이드에만 참여하였으며 입장후 성씨유래비를 둘러보고 삼삼오오 지정된 음식점에서 정담을 나누며 점심을 먹었다. 대종회에서는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다.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더운 전형적인 가을 날씨속에 입장퍼레이드에 참가해 주신 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해본다.

(총무유사 송인집)



▲ 효문화축제 장면

은송의 영화지<추원사·관동묘려·주산병사> 일원 정화작업 실시

대종회에서는 2024년 8월 31일과 9월 7일~8일에 대전 동구 마산동 소재 류조비 묘역과 주산동 소재 지평공 묘역에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0명을 동원하여 류조비 산소와 진입로, 추원사 주변, 지평공 산소, 재실에 대하여 잡초제거와 잡목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추원사와 관동묘려를 비롯하여 선조님들의 묘역과 재실, 종중소유 건물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제되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종중소유 재산의 안전관리는 물론 찾아오는 자손들과 방문객들에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장재유사 송인한)



▲ 말끔히 단장된 류조비 산소



▲ 지평공 할머니 산소

한미우호동맹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한미연합회(AKUS) 회장 송대성

송대성 한국회장은 은진송씨 26世로 충순위공파의 후손이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박사이며,

미연합회 회장으로 은송인의 고결한 선비정신과 쌍청당 선조님의 고매한 은덕불사의 얼을 몸소 선행하는 훌륭한 은송인이다.

이 행사는 2024년 10월 3일 부산

의 미국지역 회원과 6.25참전용사 그리고 주한미군 등 1,000여명이 운집하여 민간인간의 참 결속은 나라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 되는 뜻 있고 웅대한 국제적 행사를 성황리에 하였다.

설에서 “유엔 79년 역사상 전투병을 파병한 것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뜻 깊은 연설이 있었다.

이날 미 전역에 회원이 5,000명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회(KVWA) 회원들은 “수십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는데 처음 와 본 나라처럼 눈부시게 발전해 있었다”며 “이번에 한



▲ 좌로부터 3번째 송대성 회장,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공군 장성,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으로 2022년 한미 조야(朝野)를 대상으로 굳건한 우호동맹증진 여건조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인 한

향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일을 맞이하여 “한미동맹 71주년 기념행사”를 민간주최로 한국회원 800여명 뿐만 아니라 200여명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미연합회(AKUS) 송대성 한국회장은 “한미우호동맹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인사말을 했다.

한미연합회 미국회장은 “우리 모임은 3년 전 민간 모임으로 시작됐다”며 “우리는 함께 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함께 서 있을 것이다”라고 의미 깊은 답사를 하였다.

반기문(전 유엔사무총장)은 기조연

미연합회가 KVWA회원들을 한국에 초청해 줘서 고맙다”는 감회 깊은 말을 남겼다.

맺으면서, 은송인의 자랑스러운 행사가 우리의 가슴에 벅차게 차오르기에 여기에 실어서 자랑합니다.

(총무유사 송인집)



▲ 송대성 회장 연설장면

[선대 유적 탐방 (先代 遺跡 探訪)]

〈전남 장흥(長興) 장천재(長川齋)〉 III

멋들어지게 지은 한옥 장천재를 구경하고 장천재 앞의 계곡을 보러 나온다. 바위에는 다양하게 암각(巖刻)을 해놓았는데, 하나하나 보다 보니 송기로 선대의 아들인 도곡공의 이름을 마주할 수 있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던가. 도곡공의 이름이 이곳에 새겨져 있다. 이사동에서 난곡과 함께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채 꽃피우지 못하고 요절한 도곡공의 이름이 이곳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 바위에 새겨진 송석공, 도곡공의 이름

이 먼 곳 장흥까지 와서 이름 석자를 남긴 그는 천관산 계곡에서 백 년 후에도 그를 기억해주는 후손을 만난 것이다. 바위에 이름을 새긴 사연을 생각해 보면, 아마 장흥부사로 임명받은 아버지가 계신 이곳에 안부(安否)차 여행을 왔던 듯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장천재에 왔다가 자신의 이름을 바위에 새기고 이사동으로 돌아간 것 같다. 힘찬 필체가 그의 기상을 말해주는 것 같고, 젊고 패기 있는 한 선비의 글씨 쓰는 장면이 연상된다.

오현 고택은 장흥 위씨 반계공파 종택이다. 우리를 안내 해주신 위성 전시관 장님이 바로 이 반계공의 직계 후손이기도 하다. 오현 고택의 첫 이름이 위성 고택이었는데, 위성이 전시관장의 이름이기도 하다. 오현 고택은 산 아래 위치하였는데, 작은 연못과 다채로운 나무가 조경수로 자리 잡고 그 가운데 고즈넉한 한옥이 품위를 지키고 서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랑채가 손님을 맞이하는 듯 반겨주고 집



▲ 오현 위계룡(梧軒 魏啓龍 1870-1943) 선생의 영정, 석지 채용신작

뒤편으로는 안채가 우뚝 서 있다. 여러 채의 한옥 건물이 정렬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잘 배치되어 있다. 오현(梧軒) 선생이 이 집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전하는데, 후세에 대대로 남을 만한 건물을 이렇게 잘 지은 것을 보니 대단한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장천재에서와 마찬가지로 건물 구조가 특이하다. 안채 건물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일자형 한옥은 남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이라고 설명해준다. 기후가 따뜻하다 보니 난방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설명이다.

우연히 알게 된 조부의 글씨로 시작된 여정 속에서 은진 송씨와 장흥 위씨들 간 오래된 세교(世交)를 알게 되었고, 또 아쉽게 요절하신 조부의 친구이자 집안 어른인 도곡공(道谷公)의 유적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뜻깊은 여행이었다. 또, 난곡(蘭谷) 조부의 글씨가 이곳에서 남아 있었다니 나로서도 감격적인 일이었다.

아들이 조부(祖父)의 편액 글씨를 목각(木刻)해왔기에 우리집 출입문 위에 걸었다. 성재(誠齋). 재(齋)는 집이라는 뜻이기도 하니, 우리 집 당호(堂號)로 삼아도 손색이 없겠다 싶었다. 100여 년 전, 조부님의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서 빛을 보니 가슴 한편이 뿌듯하다. 우리 은진송씨(恩津宋氏) 가문과 가족들이 성재(誠齋)라는 당호처럼 정성을 다해 성지(誠之)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장천재(長川齋)에 송석(松石) 선대의 시운(詩韻) 편액으로 걸린, 「장천재열락헌운(長川齋說樂軒韻)」을 감상해 본다. (장흥군 암각문, 홍순석, 2021. 한국문화사)

昔我來遊問幾年(석아래유문기년)
옛날 내가 놀러 왔을 때 문노라 몇 년이고
浮生如夢攄愁然(부생여몽충수연)
뜨구름 인생이 꿈만 같아 모두가 아득하구나

사우당효정공파 공사원 송진팔

溪邊新刻將留跡(계변신각장유적)
시냇가에 새로 글자 새기니 장차 자취를 남기고
板上舊題遷化仙(판상구제거화선)
판자 위에 옛날 글 쓴 분들 모두 신선되어 돌아갔네
堪笑世人營富貴(감소세인영부귀)
세상 사람 부귀하려는 것을 보고 웃음을 참으며
偏憐名樹足林泉(편연명수족림천)
이름난 누대 임천이 넉넉하니 한편으로 사랑하네
於斯講信於斯詠(어사강신어사영)
이곳에 강신하고 이곳에서 시 읊으니
據事尊門盡可傳(거사존문진가전)
존문에서 이룩해 놓은 일 모두를 가히 전하리라

*강신(講信) : 향약(鄉約)에서 연말 결산보고서를 낭독하고 부정이 없음을 서로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송석 송기로(松石 宋綺老) 선대(先代)는 장흥부사를 거쳐 광주목사(光州牧使)를 마치고, 장흥부사로 재차 부임했다. 당시에 이곳 장천재長川齋를 다시 방문하고, 세월 속의 인생이 덧없음을 이렇게 한 편의 시로 표현한 시

운(詩韻)이다. 당신도 시(詩) 속의 글처럼 신선(神仙)이 되셨다. 이 한 편의 시(詩)는 오늘날 후손들에게 전하는 송석(松石) 선대의 유훈(遺訓)은 아닐까.



▲ 오현(梧軒) 고택

추파공 재실과 상곡사 환경개선

추파공 종중에서는 2024년 숙원사업이던 고요재의 담장과 재실 내부 속건물 리모델링공사, 상곡사의 단청과 보수공사 사업을 2월에 시작하여 9월에 마무리 하였다.

올해는 예년에 없던 무더위와 잦은 강우로 공사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종인들의 격려에 힘입어 상곡사의 지붕과 실내 마루의 보수 작업을 하고 도색 또한 다시 하였으며, 고요재사는 산 아래에 위치하는 관계로 여름철 많은 빗물을 고려하여 배

수로와 화단을 정비하였다. 고요재사는 들창문을 전통문으로 교체하고, 부속건물은 사무실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옛 담장을 헐고 6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기초에 석



▲ 상곡사의 단청과 보수공사로 환경개선

축을 쌓고 그 위에 한식 담장기왓대를 올리고, 관리사의 창고와 주변을 정리 하였다. 또한 동구청에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추파공파 공사원 송계용)

문중에 알려지지 않은 은진송씨 초상화 소개 [2]

동춘당문정공파 以堂 宋成彬

2. 송재경(宋載經 : 1718~1793)

흥부사 안졸현 송상유이고, 부친은 이조판서에 추증된 송필태이다.

필자는 지난 6월 2일(일) 공주 역사 박물관에 갈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개원 20주년 기념 및 박물관 재개관 기념 일본 텐리 도서관 《조선 역대 인물 초상 화첩》 중 “충남의 위인들 초상화로 돌아오다”에서 문중 인물로는 산림으로 우암



▲ 송재경, 일본 텐리대 도서관 소장된 영인

송시열 선생과 송재경 관찰사의 초상화가 소개되고 있었다.

우암 선생의 초상화¹⁾는 국내에도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송재경 관찰사의 초상화를 소개한다.

송재경(宋載經 : 1718~1793)의 자는 자중(子中)이고, 호는 기기와(棄畬窩)이며,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제월당 송규렴의 증손자로, 조부는 순

1758(영조 34)년에 음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1764(영조 40)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도승지 경연관을 거쳐, 오위도총관 예조·형조 판서 강화유수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어명을 받아 호좌(湖左)의 과거 시험관이 되어 진향(進香)할 사람을 뽑았으며,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1772(영조 48)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²⁾ 관찰사 재임 기간이 짧았던 것은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국을 계획보다 더 많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탄핵받아 고향 회덕에 물러나 있다가, 약 2개월간 북청에서 귀양살이하고 돌아왔다.

1793(정조 17)년 7월에 사망하였다. 문의현 매장리 부갑(負甲)의 언덕에 안장되었다가, 후에 공주 계룡면 봉명리로 이장하였다. 초상화의 오른쪽 위 끝에는 “송판서 재경 자(宋判書載經字)”라는 미완성 글귀가 있다.

송재경의 초상화가 소장되어있는 일본 나라현 텐리대학은 대표적인 국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소장처 중 한 곳으로, 부속 텐리 도서관에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등의 회화 작품과 고문헌 1,867건(2005년 기준), 박물관인 신코칸(參考館)에는 《문자도(文字圖)》 병풍 등 회화 작품과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도자기류, 민속품 등이 소장되어있다. 이번 특별전에



▲ 송재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는 문화유산 교류협력부에서 지난 2023년에 텐리도서관에 전해오는 《조선 역대 인물 초상 화첩》 4책을, 복제를 통해 국내에 들여왔다. 이 책에는 총 201점의 초상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초상화 중에는 충남 관련 인물 38명도 포함되어있다.

이들을 그린 초상화는 총 47점으로 한 명 초상화가 2~3점 그려진 것도 있다. 초상화는 모두 흉상(胸像: 반신상)이며, 유복(儒服)을 입은 모습으로, 조선시대 다양한 인물의 초상화이다. 이 화첩은 본래 조중구(趙重九) 소장품이었으나, 조영하의 자손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텐리대에서 이 화첩을 소장하였다고 전해진다.

1) 우암 송시열 선생 초상화는 국보 제239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2) 제월당 맥에서는 3대가 충청도 관찰사를 한 집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월당 송규렴은 1686년에, 옥오재 송상기는 1699년 1706년 두 번에 걸쳐 부임했으며(1708년 교지를 받지만 부임하지 않음), 기기와 송재경은 1772년에 관찰사를 했다.

<산야초 오솔길>

가을을 부르는 갈대

갈대의 하얀 꽃들이 잔잔한 바람결에 흔들거리며 오가는 이를 마중한다. 갯내음과 어울려 폭신한 이부자리를 깔아놓은 듯하다. 갈대 사이로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와 건너편 강둑에 매달아 놓은 작은 고깃배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스산하지만 가을을 만끽하기엔 그만이다. 단풍을 찾아 가을을 즐기는 여유도 좋지만 이렇게 물가의 갈대숲도 가을을 느끼기엔 십상이다. 말라비틀어진 줄기 위에서 흰 머리를 풀어 꽃인 양 열매인 양 가을 별판을 지키고 모습은 가히 장관이다.

갈대는 온대와 한대에 걸쳐 널리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습지나 갯가, 호수 주변의 모래땅에 군락을 이루고 산다. 뿌리줄기의 마디에서 많은 황색의 수염뿌리가 난다.

줄기는 마디가 있고 속이 비었으며, 높이는 3m 정도로 크다. 잎은 길고 끝이 뾰족하다. 꽃은 8-9월에 피고,

수많은 작은 꽃이삭이 줄기 끝에 원추꽃차례로 달리며, 처음에는 자주색인데 차츰 담백색으로 변한다. 번식은 종자와 땅속줄기로 한다.

어린 순은 식용을 하기도 하고, 이삭의 털은 솜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줄기는 밭이나 왕골로 만든 돛자리처럼 엮어 자리로 쓰고, 이삭은 빗자루를 만들어 유용하게 이용했다. 또 뗏목이 없는 산간 지방에선 갈대를 이엉으로 엮어 지붕을 덮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요즘에는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곳에 갈대를 심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도 한다.

갈대는 또한 약용식물로도 활용한다. 한방에서는 노근(蘆根)이라는 생약(生藥)명의 약재로 쓰인다.



항균(抗菌), 해독(解毒)의 약리작용이 있어서 생선 중독이나 복어 독의 해독에 응용했다. 민간요법으로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먹고 체하거나 식중독이 되었을 때 갈대 뿌리를 달여 마시면 즉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가을을 잃어버린 듯, 겨울 초입 같은 황혼 녘에 철새들이 등지를 찾아 낮게 난다.

갈대밭은 연약한 철새들의 삶의 터전이요 보금자리이며 울타리다. 사람 키 이상의 큰 모습으로 꺾충하게 서 있는 갈대들은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죽어서도 철새를 품고 안전하게 지켜준다. 못 사람들에게도 애잔한 감상을 주며 온몸으로 한풍(寒風)을 막아준다.

갈대숲의 감회를 읊은 한시(漢詩) 한 편이 생각난다.

銅雀津西月似鉤 (동작진서월사구)
동작나루 건너편엔 그믐달이 기울고
一雙驚雁度沙洲 (일쌍경안도사주)
놀라 깬 기러기 한 쌍 푸드득 난다
今宵共宿蘆中雪 (금소공숙노중설)
갈대숲 눈밭에서 이 밤을 지새우고
明日分飛各轉頭 (명일분비각전두)
내일이면 머리 돌려 헤어질 기러기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이 천주교와 관련되어 귀양 가는 길에서 동행한 부인과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며 갈대숲 한 쌍의 기러기로 자기 부부(夫婦)를 비유한 글이다. 한갓 미물에 불과한 기러기 신세가 되어 날이 밝으면 앞날을 기약할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부부(夫婦)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갈대숲 속 기러기의 서글픔을 공감하게 하는 한시(漢詩) 한 편이 심금(心琴)을 울린다.

(사우당효정공파 송진팔)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 사우 (19회)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XVI. 용강서원(龍江書院)

1. 현황

- 소재지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40
- 창건년도 : 1716년(숙종42)
- 배향인물 :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유계(兪槩) 김원행(金元行) 송명흠(宋明欽)
- 향사일 : 불향(不享)

2. 연혁

- 1716년(숙종42) 우암 송시열, 동춘 송준길, 시남 유계를 모시고 창건
- 18세기 말에 김원행, 송명흠을 추배
- 1871년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
- 1910년 지역 유림들이 구 재목을 모아 재건함

3. 인물 약전

(1)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우암 송시열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고 노론의 영수領首로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 본관은 은진,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아버지 송갑조 어머니 선산곽씨의 3남으로 태어나 김장생 김집의 문인이자 인물 약전은 종보 제187호 송현서원에 상세하게 수록되었다.



▲ 용강서원 전경

(2)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
동춘 송준길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 본관은 은진, 시호는 文正이다. 아버지는 청자와 송이창이고 어머니는 중추부사 김은휘의 딸 광산 김씨로 서울 외가에서 태어났다. 동춘당이 태어난 곳에서 김장생 김집 송준길 세 분이 태어나고 그 세 분이 문묘에 배향되어 삼현대라고 한다. 인물 약전은 종보 제186호 송현서원, 종보 제195호 흥암서원에 상세하게 수록되었으므로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3) 시남 유계(兪溪 1607~1684)

조선 후기 문신이며 학자로 자는 무중(武仲), 호는 시남(市南), 본관은 기계(杞溪), 시호는 문충이다. 유양종의 아들로 우암 동춘당과 같이 김장생에게 수학한 인연으로 본 서원에 나란히 배향되었다.

1630년(인조8)에 진사가 되고 3년

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 1636년 병자호란 때 설서로 척화를 주장했다가 화의가 성립되자 척화죄로 임천에 유배되었다가 1639년에 풀려나 벼슬을 단념하고 금산에 들어가 학문에 전념하면서 가례집해를 개작하여 가례원류를 저작하였다.
1649년 인조가 죽자 홍문관 부교리로서 왕의 장례 절차를 상소하여 예론에 따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인조의 묘호를 정할 때 조자(祖字)의 사용을 반대하고 종(宗)자를 주장하다가 이듬해 선왕을 욕되게 하였다는 죄로 온성과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1652년에 풀려나 우암과 동춘당의 추천으로 문학에 다시 등용된 후 병조 참지로 비변사 제조를 겸임하고 이어 대사간 공조참의 대사성 부제학 부승지를 역임하였다.

이 해 효종의 복상 문제가 일어나자 기년설을 지지하여 3년설을 주장하는 윤휴, 윤선도 등 남인을 논박하여 유배 또는 좌천시켰다.

1662년(현종3)에 예문관 제학을 거쳐 이듬해 대사헌 이조참판에 올랐다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1715년(숙종15)에 간행된 그의 저서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중심으로 노론과 소론간에 치열한 당쟁을 불러일으켰다.

말년에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을 본받아 노론 정권하의 고려사(高麗史)에 대한 역사관을 대변해주는 강목체(綱目體)의 려사제강(麗史提綱)을 편찬하였다. 사후에 좌찬성에 추증되고 임천의 칠산서원, 무안의 송림서원, 온성의 충곡서원에 배향되었다.

(4) 미호 김원행(金元行 1702~1772)

조선 후기 학자이며 문신으로 자는 백춘(伯春), 호는 미호(溪湖) 본관은 안동이다. 아버지는 김제겸이고 어머니는 은진송씨 도사공 송병원 딸이고, 김창집의 손자이다. 종조부인 김창협에게 배웠고 도암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19년 진사가 되었으나 1722년(경종2) 신임사화 때 할아버지 김창집이 노론 4대신으로 사사 되고 생부 김제겸을 비롯한 친형 김성행, 김탄행

등이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자 벼슬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어머니의 배소(配所)인 금산에 와서 맹자 율곡 우계 등의 저서를 탐독하며 용강서원에서 유생들을 교육하여 명성이 높았다.

1740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내시 교관, 종부시 주부, 지평 서연관, 공조참의, 사성 찬성 등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당시 김창협과 권상하의 학설에서 시작한 낙론(洛論)과 호론(湖論)의 대립 논쟁으로 나뉘었을 때 김창협의 이론을 이어 권상하의 제자인 이간(李柬)이 이재와 함께 낙론의 중심이 되고 권상하의 이론을 이어 그의 제자인 한원진이 호론의 중심이 되었는데 김원행은 낙론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의 주장은 제자인 박윤원 오윤창 홍대용 황윤석 김이안 등이 있고 저서로는 미호집이 있다.

그의 주장은 제자인 박윤원 오윤창 홍대용 황윤석 김이안 등이 있고 저서로는 미호집이 있다.

(5) 늑천 송명흠(宋明欽 1705~1768)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회가(晦可), 호는 늑천(樛泉), 본관은 은진이고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아버지는 목옹공 송요좌이고 어머니는 윤부의 딸 파평윤씨이다. 동춘당 송준길의 현손으로 15세에 사림의 촉망을 받았으나 사화를 피해서 낙향하는 아버지

를 따라 옥천 송촌 도곡 등지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뒤에 학행으로 추천되어 충청도 도사 지평 장령 등이 제수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754년(영조30)에 특별히 서연관을 제수하여 별유(別諭)를 내리기까지 하였으나 글을 올려 사양하였다.

1755년 옥과현감이 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3년상을 마

친 뒤 집의 승지 참의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모두 글을 올려 거절하였다.

1764년 정국이 다소 안정되면서 부호군에 임명되고 찬선으로 경연관이 되어 정치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영조의 비위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여 파직되었다.

늑천은 자기 학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 민우수 송사능 김양행 신소 등과 서신으로 학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늑천이 용강서원에 배향된 것은 노소론의 치열한 당쟁을 피하여 옥천에 살 때 용강서원에 출입하면서 강론한 인연으로 추배되었다. 후일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저서로 늑천집(樛泉集), 늑천소말조진(樛泉疏末條陳)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용강서원 대청마루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를 통하여 종인 독자 여러분께 종중의 발전을 홍보하고 은송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보의 발간을 위하여 종인들이 적극적으로 종보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사 제보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 다 음 -

1. 내용 :

- 1) 각 파중중의 회의, 행사, 재실이나 산소 정화 등
- 2) 학위취득이나 각종 시험 합격
- 3) 승진, 전보, 임관, 개업 등
- 4) 각종 미담 사례 등
-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관련 사진 첨부.

2. 보낼 곳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대중회
팩스 042-633-0531 / 이메일 ejs0835@hanmail.net

3. 연락처 : 전화 042-256-0835

* 중중을 아껴주시는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헌성금 및 장학금 납부자 명단 (2024.9.4.~11.1.)

<p>◆ 대종회 장학성금</p> <p>송희원 대전 중구 충무로 1,000,000 송석근 대종회장 200,000</p> <p>◆ 쌍청당 세일사 헌성금</p> <p>추파공파 천곡종중 300,000 서울 성북종친회 200,000 사)장사랑공파 양오당종중 100,000 송인국 충남 공주시 반포면 100,000 송규식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100,000 송호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100,000</p> <p>◆ 고액 헌성금(연회비) 납부자</p> <p>송천영 대전 중구 보문산로 200,000 송치명 서울 용산구 이촌로 120,000 송건호 서울 동작구 상도로 100,000 송병구 충북 영동군 영동읍 100,000 송영완 경북 상주시 상산로 100,000 송영호 서울 광진구 동일로 100,000 송재홍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0,000 송창영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000</p> <p>◆ 중중 및 종친회 연회비 납부자</p> <p>● 추파공파 헌감종중 280,000 송경한 경기 용인시 동백2로 송정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송주한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송승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송동현 서울 노원구 마들로 송우현 서울 성동구 용답13길 송이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송순한 서울 은평구 진관2로 송민한 경기 의정부시 가평로 송근영 경기 가평군 가평읍 송재찬 서울 관악구 봉천로 송용국 경기 여주시 상거길 송근주 강원 춘천시 후석로 송근직 강원 춘천시 공지로</p> <p>● 호군공파 진사공종중 100,000</p> <p>◆ 개인 연회비 납부자</p> <p>서울특별시</p> <p>송수평 서울 구로구 경서로 50,000 송정영 서울 도봉구 덕릉로 50,000 송재선 서울 성북구 길음로 50,000 송일현 서울 강서구 곰달재로 30,000 송병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0,000</p> <p>부산광역시</p> <p>송두만 부산 금정구 학산로 20,000</p>	<p>송호순 부산 부산진구 연지로 20,000</p> <p>대구광역시</p> <p>송인식 대구 동구 부동 50,000 송재일 대구 수성구 수성로 30,000 송규호 대구 동구 율하동로 20,000</p> <p>대전광역시</p> <p>송복영 대전 대덕구 동촌당로 30,000 송하영 대전 동구 안샘로 30,000 송진섭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20,000 송인철 대전 서구 평리로 20,000</p> <p>경기도</p> <p>송규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30,000 송돈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진길 20,000 송인준 경기 포천시 이동면 20,000 송창윤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20,000</p> <p>강원특별자치도</p> <p>송진호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20,000 송재극 강원 삼척시 하장면 20,000</p> <p>충청북도</p> <p>송석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50,000 송중현 충북 보은군 수한면 20,000</p> <p>충청남도</p> <p>송진현 충남 금산군 금성면 30,000 송태빈 충남 논산시 연산면 30,000 송영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30,000 송석무 충남 아산시 염치읍 20,000</p> <p>경상북도</p> <p>송광식 경북 경산시 와촌면 20,000 송교현 경북 영주시 구성로 20,000</p> <p>경상남도</p> <p>송학빈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50,000 송상기 경남 사천시 대포동 30,000 송희영 경남 합천군 합천읍 30,000 송수영 경남 김해시 진영로 20,000 송을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20,000</p> <p>전라북도</p> <p>송길동 전북 익산시 배산로 30,000</p> <p>성명 및 주소미상</p> <p>송현주 9월 6일 하나은행 10,000 송창호 9월 13일 하나은행 50,000 송기영 9월 25일 하나은행 20,000 송인군 9월 26일 하나은행 50,000</p>
--	--

헌성금(연회비) 협조안내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는 종인들께서 납부하신 헌성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뜻있는 종인께서는 헌성금 협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금 납부계좌]

-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 농협 : 351-1084-0817-03

기타안내

[지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주소 확인이 불가하오니 입금 시 독자번호와 이름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금 입금 시 대종회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대종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유교전통의례관 개관식 참석

2024년 9월 27일 대전시 동구 이사로 147-81에 위치한 대전 유일의 한옥마을인 대전시민의 별서(別墅) “유교전통의례관”이 금년 5월에 준공되어 이날 개관식을 가졌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휴양과 독서를 위해 풍광이 좋은 곳을 골라 지은 집이나 정원을 뜻하는 ‘별서’라 별칭하고 총 10동의 한옥으로 조성됐으며, 3개동은 전통문화와 의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고, 나머지 7개동 10개실은 숙박체험용 한옥으로 장애인동을 포함, 2인실부터 8인실로 다양하다. 한옥 10동의 옥호(屋號)는 대전에 소재하는 보물과 문화재의 이름을 넣어 명명하였는데 쌍청당, 동춘당, 제월당, 옥오재, 소대헌, 남간정사는 우리 은송과 관련된 옥호이다.

또한 “유교전통의례관” 큰 현판은 은진송씨 자산공파 송지영 종인이 제작하여 헌성한 것으로 더욱 돋보였다.

행사에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송석근 대종회장, 송태영 고문, 송서호 목사공종중 회장이 함께 하는 다

도(茶道)의 자리에서 이사동을 대전의 유교전통마을로 점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송석근 대종회장은 우리 선조님들의 유적인 재실과 문화재급 묘역등이 잠든 곳을 유교전통마을로 만들어 가는 큰일에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덕담을 나누었다.

개관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은진송씨 삼가공파 후손인 송인석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필두로 장철민 국회의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정명국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박희조 동구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은진송씨 문중에서는 송석근 대종회장, 송태영 고문, 송서호 목사공종중회장, 송하영, 송도영, 송기영, 송진팔, 송철기, 송성빈, 송지영, 송인호, 송성영, 송인한, 송인집 등 각파종중의 많은 종인들이 참여하여 은송의 위상을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개관식에서 이사동 일원을 “이번 대전유교전통의례관 개관을 시작으로 대전이 간직하고 있는 전통문화유산들을 문화 자원화하고 도시 브랜드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충무유사 송인집)



▲ 유교전통의례관 개관식

홈페이지 주소 홍보

인터넷에서 **은진송씨 대종회**
<http://www.ejsong.co.kr>

= 恩宋의 文化財 (27회) =

75. 합천 역평리 송씨 종가

- 종 목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5호
- 분 류 :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 수량/면적 : 2동
- 지 정 일 : 1984.11.23.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서부로 2551-3
- 소 유 자 : 은진송씨문중

은진송씨 문중의 송종만이 조선 고종 3년(1866)에 지은 가옥이다. 처음에는 유전리에 있던 것을 1986년에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지었다.



▲ 합천 역평리 송씨종가 전경

본채는 앞면 5칸·옆면 2칸의 규모이며, 건넌방·마루·큰방·부엌 순으로 배치하였으며, 마

루에는 조각한 난간을 설치하였다.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사랑채는 앞면 4칸·옆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모방·작은방·큰방·마루·부엌 순으로 배치하였으며, 마

76. 제주 오현단

- 종 목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호
- 분 류 : 유적건조물/종교신앙/제사유적/제사터
- 수량/면적 : 일괄
- 지 정 일 : 1971.08.26.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421-3
- 소 유 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선 시대에 이곳 제주도에 유배되거나 방언사로 부임하여 이 지방의 교학 발전에 공헌한 다섯 분(5현)을 기리고 있는 제단으로, 이들의 위패를 모시던 굴림서원의 옛터에 마련되어 있다. 5현은 중종 15



▲ 제주 오현단

년(1520)에 유배된 충암 김정 선생, 중종 29년(1534)에 제주 목사로 부임해 온 규암 송인수선생, 선조 34년(1601)에 안무사로 왔던 청음 김상헌선생, 광해군 6년(1614)에 유배된 동계 정온 선생, 숙종 15년(1689)에 유배된 우암 송시열 선생 등 다섯 분이다.



▲ 증주벽립

고종 29년(1892) 제주 사람 김의정이 중심이 되어 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아놓았는데, 원래는 선조 11년(1578) 임진이 목사로 있을 때, 판관 조인준이 가락천 동쪽에 충암 김정을 모시기 위한 증암묘

를 지은 것이 그 시초이다. 현종 6년(1665) 판관 최진남이 이 묘를 장수 당 남쪽인 지금의 자리로 옮겨 놓은 뒤, 숙종 8년(1682) 예조정랑 안건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굴림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하여 김정 선생·송인수 선생·김상헌 선생·정온 선생 등 네 분의 위패를 모시도록 하였다. 숙종 21년(1695) 송시열 선생도 함께 모시면서 5현을 배향하게 되었으나, 고종 8년(1871) 서원철폐령이 내렸을 때 서원이 헐리게 되어, 그 터에 이 제단을 설치하게 되었다.

단 내에 있는 5현의 자취로는 철종 7년(1856) 송시열 선생의 글씨로 하여 판관 홍경섭이 바위에 새긴 '증주벽립(增朱壁立)'이라는 글씨와, 김정선생과 송시열선생의 '적려유허비'가 남아있다.

「은송의 문화재」 연재를 마치며

편집자 주 = 종보 제177호(2020년 7월 1일)부터 연재했던 「은송의 문화재」를 이번 호로 마치게 됐다. 국보, 보물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 지정 문화재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하여 우리 종중 소유이거나 관리 또는 선조님과 관련된 문화

재를 찾았다. 은송의 문화재가 주로 대전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혹여 다른 지방에 놓친 우리 종중 관련 문화재가 있다면 독자 종인은 대총회에 자료를 주면 추가로 게재할 것이다. 그동안 연재했던 76건의 문화재를 총정리한다.

번호	문화재 명칭	문화재 종목
1	송시열 초상	국보 제239호
2	대전 회덕 동춘당	보물 제209호
3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보물 제1672-1호
4	송준길 행초 증 손 병하	보물 제1672-2호
5	송문흠 예서 경재첩	보물 제1678호
6	대전 동춘당 종택	국가 민속문화재 제289호
7	대전 소대현 호연재 고택	국가 민속문화재 제290호
8	송자대전판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1호
9	회덕 쌍청당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2호
10	남간정사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4호
11	옥류각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7호
12	제월당 및 옥오재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9호
13	은진송씨 정려각 및 비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24호
14	고흥류씨 정려각 및 비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25호
15	제월당 송규렴 간독첩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49호
16	송요년의 묘역	대전시 기념물 제44호
17	송응서의 묘역	대전시 기념물 제45호
18	송남수의 묘역	대전시 기념물 제46호
19	송기수의 묘역	대전시 기념물 제47호
20	송순주	대전시무형문화재 제9-가호
21	국화주	대전시무형문화재 제9-나호
22	문충사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4호
23	취백정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9호
24	송준길의 묘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15호
25	월송재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31호
26	은진송씨 승지공재실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33호
27	관동묘려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37호
28	우암송시열 초상	보물 제2128호
29	송자고택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39호
30	송씨 양세 정려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43호
31	쌍청당 송유묘표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65호
32	수옹송갑조신도비및후기비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66호
33	쌍청당 암각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67호
34	논산 돈암서원	국가 사적 제383호
35	용강서원	충남 문화재자료 제19호
36	충현서원	충남 문화재자료 제60호
37	괴산 송시열 유적 1. 2.	국가 사적 제417호
38	괴산 송병일 고택	국가 민속문화재 제147호
39	청원송인수묘소 및 신도비	충북 기념물 제131호
40	청주 신항서원 묘정비	충북 유형문화재 제350호
41	청주 신항서원	충북 기념물 제42호
42	청주송상현묘소 및 신도비	충북 기념물 제66호
43	보은 상현서원	충북 기념물 제43호
44	옥천 송시열 유허비	충북 기념물 제45호
45	송시열 초상	충북 문화재자료 제63호
46	옥천 경현당	충북 문화재자료 제158호
47	옥천 송갑조 유기비	충북 문화재자료 제55호
48	옥천 옥주 사마소	충북 유형문화재 제157호
49	옥천 창주서원 묘정비	충북 기념물 제105호
50	조현 신도비	충북 유형문화재 제183호
51	영동 송시열 유허비	충북 기념물 제46호
52	영동 소석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32호
53	영동 규당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40호
54	영동 한천정사	충북 문화재자료 제28호
55	용강서원	충남 문화재자료 제19호
56	우암 송시열 집터	서울 유형문화재 제57호
57	송시열 상	서울 유형문화재 제139호
58	도봉서원과 각석군	서울 기념물 제24호
59	우암 송시열 초구 1령	서울 민속문화재 제24호
60	송준길서첩-민기묘표,신도비명	경기 유형문화재 제327호
61	강한사	경기 유형문화재 제20호
62	대로사비	경기 유형문화재 제84호
63	송준길 등 서첩	경기 문화재자료 제11호
64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	경기 유형문화재 제359호
65	화산서원비	전북 문화재자료 제4호
66	우암 수명 유허비	전북 유형문화재 제50호
67	고암서원 묘정비	전북 문화재자료 제81호
68	장성 필암서원	국가 사적 제242호
69	장성 김인후 신도비	전남 기념물 제219호
70	상주 흥암서원	경북 기념물 제70호
71	동춘간첩	경남 유형문화재 제509-16호
72	부강 보만정 및 금담서원 묘정비	세종 문화재자료 제10호
73	송병선 연재 문집 목판	경남 유형문화재 제312호
74	송정렴 준양재 문집 목판	경남 유형문화재 제248호
75	합천 역평리 송씨 종가	경남 문화재자료 제105호
76	제주 오현단	제주 기념물 제1호